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운영현황 및 지원요구*

홍 은 숙**

나사렛대학교

유 장 순***

나사렛대학교

박 경 옥

한국우진학교

《 요 약 》

이 연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운영 현황과 지역규모별 차이를 분석해 보고,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발전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과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98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242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은 보통 이하였고, 진로 및 직업교육에서는 광역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산어촌보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생교육에서는 지역규모간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 및 직업교육에서는 전문 인력 배치 미비, 수요자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미흡,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 및 직업교육, 평생교육

* 이 논문은 2011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1저자(eshong@kornu.ac.kr)

*** 교신저자(yujjang@kornu.ac.kr)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1년부터 특수교육전달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3년 제2차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 교원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특수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강경숙 등, 2010; 오세철, 홍은숙, 박경옥, 2010; 홍은숙, 노진아, 이미애, 2010; 정동일, 2005), 특수교육서비스지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그 전달체계에 변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립 취지는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9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선행 연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순회교육, 장애영아 교육지원, 치료지원, 통합교육 지원, 진단·평가,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 교재·교구의 활용 및 관리, 장애아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장애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의뢰, 유관기관과의 협력 또는 연계체계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강경숙, 최세민,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 국립특수교육원, 2009; 권택환, 신재한, 2008; 이미선 등, 2005; 정동일, 2005; 한경근, 2005; 한현민, 2005), 2010년 현재, 전국 182개 시·군·구 교육청 산하 18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어 이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특수교육 운영 중점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에 두어, 학교교육 재학기간 동안은 물론, 학교졸업 후 성인이 된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가족에게만 부과하던 장애인 교육 및 복지에 대한 책무성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진로 및 직업교육지원을 위해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 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를 두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고, 지역의 사업체 및 관련 기관 간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은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자연스럽게 직업교육-직업훈련-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생의 전환기 교육지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2항에는 특수교육기관 및 일반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는 일반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 단체가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매뉴얼(국립특수교육원, 2009)에도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평생교육 실시 및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실행 면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이제 막 발걸음을 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김남진, 박재국, 2007; 박승희, 2004; 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4; 정인숙, 2007)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입안을 위한 요구조사 및 지원방향에 대한 탐색을 하는 정도에 그쳤고, 2009년에 이르러서 평생교육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하나의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실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즉, 특수학교 중등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은 성숙도나 교육내용면에서 장애인이 성인기를 준비하기에는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취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적응, 의식주생활, 여가 및 건강 유지 생활 등의 일상생활을 분석·반영한 다양한 양질의 전환 및 평생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박승희, 2004; 백은희 등, 2001)은 향후 과제로 남겨져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장애성인의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은 생애주기별 one-stop 특수교육지원이 그 당위성을 충족시켜나가기에 충분한 명분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요구를 조사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운영 모형 개발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전체적인 운영현황 및 지역규모별 운영현황, 문제점과 현실적 지원요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운영현황은 어떠한가?
- 둘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운영현황의 지역규모별 차이는 어떠한가?
-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문제점과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지원과 평생교육지원의 운영현황 및 지원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마다 세 부의 설문지를 보냈다. 이에 98개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261명의 교사가 설문에 응답하였고, 그 중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19부를 제외하고 최종 242명의 설문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또한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지원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포커스그룹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각 지역의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에게 면담의 목적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자를 4명 추천 받았다. 그리고 추천 받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지역규모별로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17명의 교사를 면담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면담대상자의 특수교육경력 평균은 8년 2개월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경력 평균 2년 2개월이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변 인	구분	빈도(%)	계(%)
성 별	남자	43(17.8)	100
	여자	199(82.2)	
연 령	20대	140(57.9)	100
	30대	65(26.9)	
	40대	22(9.1)	
	50대 이상	8(3.3)	
	무응답	7(2.9)	
특수교육지원센터 경 령	2년 미만	142(58.6)	100
	4년 미만	72(30.0)	
	4년 이상	28(11.4)	
지역규모	광역시	59(24.4) ¹⁾	100
	중·소도시	79(32.6) ²⁾	
	농산어촌	104(43.0) ³⁾	

2. 연구 도구

1)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평가지표

연구 도구는 오세철, 홍은숙, 박경옥(2010)에 의해 개발된 특수교육지원센터 평가 지표 중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과 관련된 10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평가 지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 합치도를 알아본 결과, ‘진로직업 교육지원’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923$ 으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 지원’의 문항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954$ 로 나타났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현황에 대해 ‘1 = 매우 미흡, 2 = 미흡, 3 = 보통, 4 = 우수, 5 = 매우 우수’로 응답하게 하였다.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문항 내용

영역	문항 내용	Cronbach α
진로직업 교육지원 (5문항)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가 배치	.923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 및 취업 희망에 대한 기초적인 DB구축	
	센터 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학생들의 직업평가 실시 및 활용	
	지역 거점 특수학교 및 직업 훈련 기관을 활용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직업교육 지원)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해 산업체 견학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평생교육 지원 (5문항)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자 요구 조사	.954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홍보 및 평생교육 관련 정보제공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평생 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결과 분석을 통한 환류	
	평생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시설에 대한 자료 확보	

- 1)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소재 지역교육청(인구 100만 이상).
- 2) 인구 10만 ~ 100만 미만 도시 소재 지역교육청.
- 3) 인구 10만 미만 도시 소재 지역교육청.

2) 포커스그룹 면담(FGI) 질문지

포커스그룹 면담(FGI)을 위한 질문지는 정책보고서 및 연구 논문(강경숙, 최세민, 김규일, 2008; 권택환, 신재한, 2008; 이미선, 김태준, 이유훈, 조광순, 2005)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2명에게 예비 면담을 실시한 후, 연구자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 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구체적인 FGI 질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포커스그룹 면담(FGI)을 위한 질문 내용

영역	질문 내용
진로 및 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의 현황 및 실태(직업교육관련 인력, 역할 등) - 직업교육 실시과정의 문제점 - 직업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 직업교육의 개선방안 및 제안, 요구사항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의 현황 및 실태 - 평생교육 실시과정의 문제점 - 향후 평생교육 부분을 센터에서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 - 평생교육의 개선방안 및 제안, 요구사항

3. 연구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2010년 4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설문조사와 면담은 동시에 이루어졌다. 우선 설문지는 ‘2009 특수교육통계(2009,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포커스그룹 면담(FGI)은 서울, 인천, 충남, 전남에서 각 1회씩 실시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의 수는 서울 3명(3개 교육청), 인천 5명(2개 교육청), 충남 5명(3개 교육청), 전남 4명(3개 교육청)으로 총 17명이 참여하였다. 교사 선정은 소속된 센터의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도시(서울, 인천) 센터의 교사가 8명, 인구 10만~100만 미만 도시 센터의 교사가 5명, 인구 10만 미만 도시 센터의 교사가 4명이었다. 면담그룹은 한 그룹 당 3~5명으로 구성하였다. 면담은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 참여자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특수교육지원센터 한 곳을 정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면담은 사후분석을 위해 녹음을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1) 설문지 분석

설문지 문항 결과는 SPSS(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우선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Cronbach α)을 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지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지역규모별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2) 포커스그룹면담(FGI) 자료 전사 및 분석

4개의 면담자료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사 경력이 풍부한 특수교육과 졸업생이 1차적으로 모두 전사를 하였고, 이렇게 전사된 내용을 연구자 2인이 개별적으로 녹음된 면담을 들으면서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은 연구자 2인이 함께 들으면서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완성된 전사본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영역에서 각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문제점, 지원요구의 세 범주로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둘째, 설문 문항과 관련된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충해주거나 명확하게 해주는 인용문을 선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전국적인 운영현황, 지역규모별 운영현황의 차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문제점 및 지원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운영현황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영역별 문항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 개별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교사들은 진로 및 직업교육(M=2.40, SD=0.891)과 평생교육(M=2.50, SD=0.808) 영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다른 서업에 비해 그 운영현황을 보통 이하로 평가하고 있었다. 영역

별 개별 문항을 보면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10개 항목 모두, 평균이 2.60 미만으로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영역별로 볼 때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하여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 및 취업 희망에 대한 기초적인 DB구축’ 이 평균 2.27(SD=0.906)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는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가 배치’ (SD=1.067)와, ‘센터 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학생들의 직업평가 실시 및 활용’ (SD=0.995)이 평균 2.34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 거점 특수학교 및 직업 훈련 기관을 활용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 평균 2.57(SD=1.096)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결과 분석을 통한 환류’ 가 평균 2.44(SD=0.874)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는 ‘평생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시설에 대한 자료 확보’ 가 평균 2.47(SD=0.913),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이 평균 2.48(SD=0.898)로 높았으며,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자 요구 조사’ (M=2.56, SD=0.834)와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홍보 및 평생교육 관련 정보제공(M=2.56, SD=0.89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문항에 대한 현황은 평균 2.27~2.57(표준편차 .874~1.096)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표준편차는 큰 편이었다.

<표 4>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항목별 기술통계
(N=242)

문항	내용	M(SD)	
진 로 및 직 업 교육	1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가 배치	2.34(1.067)
	2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 및 취업 희망에 대한 기초적인 DB구축	2.27(0.906)
	3	센터 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학생들의 직업평가 실시 및 활용	2.34(0.995)
	4	지역 거점 특수학교 및 직업 훈련 기관을 활용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직업교육 지원)	2.57(1.096)
	5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해 산업체 견학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2.50(1.009)
계		2.40(0.891)	
평 생 교 육	6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자 요구 조사	2.56(0.834)
	7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홍보 및 평생교육 관련 정보제공	2.56(0.892)
	8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2.48(0.898)
	9	평생 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결과 분석을 통한 환류	2.44(0.874)
	10	평생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시설에 대한 자료 확보	2.47(0.913)
계		2.50(0.809)	

2. 지역규모별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운영 현황 차이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영역 전체에 대한 광역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별 운영 현황 및 지역규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영역의 문항 평균은 광역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순으로 두 영역 모두에서 광역도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광역도시가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진로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규모별 운영현황의 차이

영역	지역규모			F	Scheffé
	광역도시(n=59) ^a	중소도시(n=79) ^b	농산어촌(n=104) ^c		
	M(SD)	M(SD)	M(SD)		
진로직업	2.84(1.090)	2.31(.804)	2.20(.729)	11.035***	a > b, a > c
평생교육	2.72(.862)	2.45(.868)	2.42(.708)	2.863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지역규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지역규모별 진로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운영현황의 평균과 표준편차

영역	문항	지역규모				F
		광역도시(n=59) ^a	중소도시(n=79) ^b	농산어촌(n=104) ^c	전체(n=242)	
		M(SD)	M(SD)	M(SD)	M(SD)	
진로 직업	1	3.10(1.322)	2.16(0.854)	2.04(0.823)	2.34(1.067)	24.16***
	2	2.61(1.034)	2.29(0.879)	2.07(0.792)	2.27(0.906)	7.12***
	3	2.76(1.208)	2.26(0.904)	2.15(0.856)	2.34(0.995)	7.83***
	4	3.07(1.237)	2.51(1.073)	2.34(0.941)	2.57(1.096)	8.99***
	5	2.81(1.191)	2.37(0.950)	2.42(0.910)	2.50(1.009)	3.82*
평생 교육	6	2.76(0.953)	2.49(0.799)	2.50(0.776)	2.56(0.834)	2.28
	7	2.76(0.971)	2.49(0.918)	2.49(0.812)	2.56(0.892)	2.07
	8	2.80(0.996)	2.41(0.954)	2.37(0.751)	2.48(0.898)	4.94**
	9	2.69(0.959)	2.39(0.926)	2.35(0.760)	2.44(0.874)	3.13*
	10	2.61(0.910)	2.44(1.022)	2.41(0.822)	2.47(0.913)	0.96

*p<.05, **p<.01, ***p<.001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개별문항을 지역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문항 1~4 모두 광역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순으로 광역도시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항 5에서만 근소한 차이로 중소도시가 평균 2.37(SD=0.950)로 농산어촌의 평균 2.42(SD=0.910)보다 약간 낮게 나왔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개별문항을 지역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문항 8, 9, 10에서 광역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순으로 광역도시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항 7에서는 평균 2.49로 중소도시(SD=0.918)와 농산어촌(SD=0.812)이 같게 나타났으며, 문항 6에서만 농산어촌이 평균 2.50(SD=0.776)로 중소도시의 평균 2.49(SD=0.79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ANOVA검증을 실시한 결과, 진로직업과 관련된 모든 문항에서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문항 8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과 문항 9 ‘평생 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결과 분석을 통한 환류’ 에서만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항 1(F=24.16, p<.001), 문항 2(F=7.12, p<.001), 문항 3(F=7.83, p<.001), 문항 4(F=8.99, p<.001), 문항 5(F=3.82 p<.05), 문항 8(F=4.94, p<.01), 문항 9(F=3.13, p<.05)에서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차이가 어떤 지역규모 간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요약표

	문항		중·소도시 ^b	농산어촌 ^c	Scheffé
1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가 배치	광역도시 ^a	***	***	a>b, a>c
2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 및 취업 희망에 대한 기초적인 DB구축	광역도시		**	a>c
3	센터 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학생들의 직업평가 실시 및 활용	광역도시	**	**	a>b, a>c
4	지역 거점 특수학교 및 직업 훈련 기관을 활용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직업교육 지원)	광역도시	**	***	a>b, a>c
5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해 산업체 견학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광역도시	*		a>b
8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광역도시	*	*	a>b, a>c

*p<.05, **p<.01, ***p<.001

지역규모별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운영현황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중소도시 - 농산어촌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항 1, 3, 4, 8에서는 광역도시 - 중·소도시 및 광역도시-농산어촌 간의 운영현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2에서는 광역도시-농산어촌, 문항 5에서는 광역도시 - 중·소도시 간의 운영현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된 전체적인 운영이 광역도시가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평생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서 광역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에 비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규모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지원 방안

포커스그룹면담을 통해 나타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지원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문제점

(1) 진로교육의 문제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해 진로상담과 프로그램 운영, 현장 연계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 교육청 소속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도할 학생의 범위는 중학교 과정까지로, 실제 현장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체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은 물론, 운영 프로그램도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배치 미비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관련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데에 있었다. 진로 및 직업교육지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이고 향후 더 강화되어야 할 역할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는데 반해 실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로교육전문가는 거의 배치되지 못하고 있었다. 본 면담에 참여한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단 1개의 센터에서만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었고, 이 센터에서는 진로 및 직업교육관련 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애학생들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지원에서 전문가 배치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얼마 전에 졸업을 한 아이한테 전화 왔어요, 그 아이가 ○○대 사회복지과에 진학했어요, 특수교육 받은 학생이 대학교 간 것도 신기했죠, 근데 그 아이는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적응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한동안 데리고 지도를 했어요, 이럴 땐 이렇게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속적인 게 될 수가 없잖아요, 수업을 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결국 휴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력이 좀, 상담도 하고, (농산어촌 C특수교육지원센터)

점점 화두가 되는 게, 영아교육지원하고 직업교육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우리도 하고자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손은 덜 가고 있죠, (농산어촌 B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도 마찬가지로요, 저희는 프로그램 위주거든요, ○○는 직업교육 담당 선생님이 계시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담당자가 없어요, 그냥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프로그램 강사를 쓰는 거죠, 전문적으로 직업에 대해 고민할 사람이 없어요, (광역시 E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해서 일자리 센터나 아니면 직업재활 이런 관계 기관하고 연계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문의가 왔을 때 안내는 해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직접적으로는 못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 영역은 너무 큰 범위인 데다가 문의 전화도 간간히 오고 그래서 그냥 일단 알아두고 연계는 해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이런 건 잘 못하고 있어요, (광역시 C특수교육지원센터)

② 진로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지역교육청에서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가 학생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센터의 여건에 학생이 맞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개별 학생에 대한 직업평가 및 체계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활동은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 및 직업교육 전문가가 배치된 센터에서는 개별 학생의 능력을 개발해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학생의 진로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지역교육청이잖아요, 유초중이라서 직업탐색과정까지 하니까 그 이상으로만 진로를 직접 개척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요, 개별적으로 이 아이에게 맞는 직업교육이 뭔지 탐색해서 접근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아이들이 오는 거죠, (광역시 E특수교육지원센터)

아이들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자주 온다면 직업을 탐색한다는 것부터 연계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아이들은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일 년에 4번 온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을 데리고 탐색단계부터 흥미를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 가기엔 어려워요. 공예 위주로 하다보면, 아이들이 만드는 완성품, 선생님들도 원하시는 게 애가 지원센터에 가서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완성품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 안에서 아이들의 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게 선생님들 도움이 더 많이 가는 부분이 많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선 저도 고민이 참 많아요. 그리고 공예에만 한정되지 말고, 직업군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경찰, 소방관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무직이라든가 그런 직업군에 대한 체험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게 여건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광역도시 D특수교육지원센터)

보통 특수학교가 있으면 그런 진로직업교육이 전공과에 있어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은 아예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농산어촌 B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 진로직업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일단 진로교육은 중학교까지밖에 관장을 안 해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진로교육이 되면 낫지만 직업교육 쪽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고등학교 쪽 애들이 좀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직업교육의 어려움은 도나 센터 내에서 예를 들어 애들은 한정되고 그 많은 직업들을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또 특정 직업을 한다고 해도 이게 아이들하고 맞는 것도 어렵고, 이런 게 있어요.

(광역도시 A특수교육지원센터)

유초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채용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부 학교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있고요, 심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과제빵이라고 했어요. 중학교 1, 2, 3학년 중에 신청을 받아요. 그 중 7명 정도 뽑아서 전문 강사가 직접 과정 하나하나를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심화반이 참 좋았던 게 작년엔 사정 때때 교육을 못했고 2008년도에 했을 때 2명이 뛰어난 치료를 보였어요. 고등학교 진학할 때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명은 조리학교에 입학했어요.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 같고, 아이들 채용 프로그램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주로 공예 쪽으로 치중되어 있긴 한데 내가 어떤 걸 만들어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난 이런 색깔 도배 능력이 있네, 그런 걸 발견을 해서 직업 쪽으로 연결하는 데는 좋은 프로그램이 된 거 같아요.

(광역도시 D특수교육지원센터4)

4) 광역도시 D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직업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음.

③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부족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문제는 직업교육이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취업과는 연계가 안 된다는 데에 있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산업체하고 좀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쪽과 연계가 되어서 취업반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또 직업교육이 취업과 연계는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중소도시 A특수교육지원센터)

저희가 직업에 관해서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나 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에 우리 애들을 취업시켜주고 싶어서 저희가 몇 번이나 찾아가서 이 아이를 청소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복사나 그렇게 취업을 시켜주면 안되겠냐 말해봤는데 힘들다고 해서…….

(농산어촌 C특수교육지원센터)

(2) 평생교육의 문제점

평생교육은 대부분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인 면이나 인력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인식 및 인력의 부족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들은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지원센터에서 평생교육까지 맡아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력부족으로 평생교육은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농산어촌 B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법에도 지원센터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고 사실은 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직업교육이 아닌 평생교육은 쉽지 않아요……, ○○에도 평생교육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모이게 할 수가 없어요,

(중소도시 A특수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 차원은 복지관이나 우리 센터에서 평생교육까지 다루려면 재택을 하다가 나간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 ○○은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전담인력 하나에다가 기간제 두 명, 세 명

이 인력인데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해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작년에 졸업한 우리 재택 아이들을 손을 현재 못 대고 있어요, 선생님들 수업 시수가 많아서……, (농산어촌 A특수교육지원센터)

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인력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평생교육은 프로그램 지원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다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에 프로그램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쪽은 프로그램지원 쪽으로, 운영은 좀 어려울 거 같고……, 재료비하고 강사수당 전부 다 같이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요, 거기는 장소하고 장애성인들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하죠, (중소도시 A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 성인은 복지관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성인교육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 어느 사업이든지 예산 위주로 돌아가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프로그램 예산만 와요, 강사비, 딱 이미 발굴되어있는 장애 성인들한테 프로그램만 할 수 있게 예산이 오는데, 센터에서는 이미 복지관 다니거나 기존에 발굴된 성인들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광역시 E특수교육지원센터)

제일 문제는 이동권이에요, 그게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힘든 문제고 그래서 평생교육으로서도 앞으로도 계속 힘든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안내까진 할 수 있지만 교과부에서 거기까지 책임진다는 건 엄청나게 방대한 거고, 이걸 타 부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프로그램 안내라던가 그런 건 해줄 수 있겠죠, 앞으로도 그걸 직접 운영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고, (중소도시 A특수교육지원센터)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원요구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나타난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요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소속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거점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 각 개별적인 특수

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전문가를 상주하게 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의 효율화를 돕는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 학생의 진로직업을 탐색하고 취업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①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거점 센터 운영

대다수의 지역교육청에서는 진로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수요나 필요에 따라 거점 직업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근 지역을 묶어서, 아니면 특수학교 위탁을 하거나, 아님 거점 지역에 해서 진로직업센터가 있으면 합니다. (농산어촌 B특수교육지원센터)

이거(직업교육)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직업교육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와서 직업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몰라도 지역교육청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광역도시 A특수교육지원센터)

② 시·도교육청의 지원 및 협력

지역교육청이 하기 어렵거나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 및 성인 교육을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담인력 지원 및 지침마련 등 시·도교육청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있다면 일단 고등학교 애들을 확실히 움직여야 해요, 전체 여러 개를 통제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 고등학교 애들, 평생교육, 직업 그런 걸 거기서 해야 해요, 전반적인 지침이나 그런 걸 매뉴얼화 해줘야 하고, 우리도 전체적으로 지엽적인 부분을 하지만, 거기서 총체적인 것들을 해줘야 해요. (광역도시 B특수교육지원센터)

본청에 전문 인력도 몇 명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지역교육청에서 우리가 못하는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대로 운영하려면 다 있어야 해요,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상주시키지 못하는 인력 있잖아요, 우리가 수시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써야 해요, 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면 참 좋겠죠? 수월하고, 어떤 민원이 있을 때에도 민원창구 같은 전담

인력이 있고 하면……,

(광역도시 A특수교육지원센터)

일단 진로직업교육을 하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초등학교부터 진로지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또 중등교사가 와야 해요, 직업담당교사가……,

(광역도시 A특수교육지원센터)

③ 지역사회 연계협력 모색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들은 지역사회와 연계력을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직업교육은 물론 취업안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센터에서는 진로 및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하게 지원 방법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꼭 우리가 센터에서 꼭 될 못하더라도 여러 군데 주변 시설을 이용을 해서 가능하죠, 지금은 또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업체 좋은 데, 사장 좋은 데 만나면 잘 될 수도 있어요, 일반기관과 협력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직업교육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광역도시 A특수교육지원센터)

저희들은 선생님들(특수학교 직업 교사)을 통해서 산업체를 안내해 줍니다, 연계시켜주고, 저희들은 공간이 없어요, 굳이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면, 공장이 있어야겠죠, 그럴 바에는 시설이 있는 특수학교에 보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도시 A특수교육지원센터)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란 연계를 해서 노인 어르신 직업사업과 관련되는 거죠, ○○○사업이라고 해서 직업전환 교육할 때 저희가 요청한 인원만큼 파견을 해주세요, 일주일에 세 번씩 오셔서 아이들 활동 보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학교 외출하면 일반 현장학습이라든지 통학 지원, 점심식사 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구요, 그러니까 복지관과 센터와의 사업 연계라고 보시면 돼요,

(광역도시 D특수교육지원센터)

전환교육 차원에서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진학하는 그 사이에 있는 초등교육전환기 아동을 대상으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후원은 ○○에서 받았고, △△사회복지관에서 저희 센터 주관에서 했었거든요, 특수교육 교수님 한 분 모시고, 초등, 초등특수교사, 어린이집 원장 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이 될 준비하면 초등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지 그런 토론은 한 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반응은 좋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과 ○○에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돈을 팍팍 주겠다 하시면서, 그래서 꾸준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처럼 전환교육도 일반교육과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면, 우리 인력이 부족하니까 방법은 그것 밖에 없어요(꼭 우리가 센터에서 꼭 될 못하더라도 여러 군데 주변 시설을 이용을 해서 가능 하죠, 지금은 또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업체 좋은 데, 사장 좋은 데 만나면 잘 될 수도 있어요, 일반기관과 협력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직업교육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광역도시 B특수교육지원센터)

(2) 평생교육 지원요구

평생교육 외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고유한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현재처럼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센터의 역할은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싶어 하는 대상자들을 해당 교육기관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평생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① 평생교육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의 인력과 시설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향후 역할을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성인을 발굴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은 오는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복지관에서 장애성인들을 집을 일일이 방문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인교육을 센터에서 담당하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역도시 E특수교육지원센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큰 센터의, 어마어마한 특수학교조차도 크다고 다는 아니에요, 조금조금하게 단일 유치원 정도 되는, 1층 정도 되는 규모고 지역별로 되어 있어야지 지역을 묶어서 센터를 만든다면 혜택 보는 사람들은 일부일 거라고 봐요, 제일 문제는 이동권 이에요, 그게 해결이 되어야해, 그게 힘든 문제고 그래서 평생교육으로서도 앞으로도 계속 힘든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안내까진 할 수 있지만 교과부에서 거기까지 책임진다는 건 엄청나게 방대한 거고, 이걸 타 부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프로그램 안내라던가 그런 건 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직접 운영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고, 앞으로도, 그래서 몇 지역을 묶어서 크게 직업교육, 평생교육장을 만든다는 것은 저로서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죠,

(중소도시 A특수교육지원센터)

이미 복지관에 다니고 있는 성인들은 그냥 쪽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발굴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일단 발굴을 해놓으면 못하신 분들은 도와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이렇게 밖에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르게 쓸 수가 없어……, 성인교육을 센터에서 담당하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역시 E특수교육지원센터)

②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유관기관에 위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보건복지부와 같은 유관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제안하였다.

특히 평생교육 쪽은 프로그램 지원 쪽으로 되고, 장애인단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을 해서 의논을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중소도시 A특수교육지원센터)

요즘 시설은 학교행사에 참여를 못할 정도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정이 힘든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일터에 가기 때문에 방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택 아이들은 우리가 수업 시수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만약에 센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투입하자면 우리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다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생교육 차원은 현재 복지관이나 성인대상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평생교육부분을 넘겼으면 하구요, (중소도시 A특수교육지원센터)

IV. 결론 및 제언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지원요구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운영현황은 모두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규모별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로 및 직업교육에서는 광역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산어촌보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생교육에서는 지역규모간의 차이

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진로 및 직업교육에서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배치가 미비하고, 수요자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본질적인 역할로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실질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향후 발전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및 직업교육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고(이미션 등, 2005)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 할 영역이므로(교육과학기술부, 2010), 전문인력 배치(강경숙, 최세민, 2009)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개별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업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 및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전담인력이 진로 및 직업교육 상담, 직업능력평가, 취업 후 지도, 취업연계 및 적응지도, 현장실습 지도,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부모연수 등을 담당하고, 시도교육청과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중앙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도교육청과 지역단위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쌍방향적 지원체계를 갖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오세철, 홍은숙, 박경옥, 2010).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관, 산업체, 지역의 개인사업장 등과 연계하여(교육과학기술부, 2010; 국립특수교육원, 2009) 학생의 직업적성에 맞는 기관을 찾아 위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과 역할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고(김남진, 박재국, 2006; 정인숙, 2007), 평생교육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으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전공 교사들에게 장애인의 평생교육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기 이전에 한국교육개발원

산하인 평생교육센터와 같은 유관기관에서 지역사회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 및 시범 운영을 하거나 또는 독자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적용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김남진, 박재국, 2004; 박승희, 2004; 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7). 향후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면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평생교육기관에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적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전수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회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또한 지역규모별 운영현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역의 유관시설, 특수학교의 유무, 산업구조 등을 고려한 운영현황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적절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모형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숙, 최세민 (2009).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중복지체부자유아연구**, 52(3), 19-45.
- 강경숙, 최세민, 김규일 (2008).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모형연구. 서울: 한국특수교육진흥회.
- 강경숙, 육주혜, 박근호, 김호연, 정광조, 김태준 (2010). 중앙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특수교육관계자의 인식 및 운영 방안 탐색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2(2), 459-482.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0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현장 요구 조사.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권택환, 신재한(2008).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분석. **중복지체부자유아연구**, 51(3), 61-78.
- 김남진, 박재국 (2007). 특수교육학술지를 통해 본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동향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41(4), 215-234.
- 박경옥, 박은송, 박희찬 (2010). 최종도 지체장애인의 직업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연구**, 53(4), 167-190.
- 박승희 (200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개관 및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9(1), 39-75.
- 백은희, 박승철, 전병운, 김종인 (2001).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6(1), 169-205.
- 오세철, 홍은숙, 박경옥 (2010). 특수교육지원센터 평가지표 타당화 연구. **정서행동장애아 교육연구**, 26(3), 277-299.
- 이미선, 김태준, 이유희, 조광순 (200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요구분석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향 탐색. **특수교육**, 2(1), 5-35.
- 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4). 장애인과 평생교육 관계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간 협력체제 구축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앤드라고지 투데이**, 7(1), 1-34.
- 정동일 (2005).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설치에 대한 국가 정책의 현황과 방향. **현장특수교육**, 12(5), 48-51.
- 정인숙 (2007).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과 시사점. **특수교육학연구**, 41(4), 173-193.
- 한경근 (2005).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발전 방향. **현장 특수교육**, 12(5), 36-38.
- 한현민 (2005). “장애인 교육의 시대에, 특수교육을 이야기하며.....” **2005년 한국특수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101-124.
- 홍은숙, 노진아, 이미애 (2010).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실태 및 지원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0(2), 1-22.

Management Status and Support Needs
for Career & Vocational Education and Continuing
Education of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Hong, Eun Suk

Korea Nazarene University

Yoo, Jang Soon

Korea Nazarene University

Park, Kyoung Ock

Korea Woojin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recommendations of developmental support needs through FGI by examining the current nationwide status and local discrepancy of career & vocational education / continuing education of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executed lots of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also surveyed 242 specialized staffs who were in charge of 98 nationwid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through FGI and questionnai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t is less than average to manage career & vocational education/continuing education of nationwid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In carrier vocational education, wide districts(urban) have more operative than medium/small districts and farming/fishing villages. In continuing education, there is no local difference between the scale of districts. 2) For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career & vocational education, There were lack of placement of specialized staffs and less diversity of programs on reflecting substantial needs for students and parents, insufficient connection between related agency and local commun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for promotion plans of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on career & vocational education and continuing education.

Key words: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Career & Vocational education, Continuing education

논문 접수: 2010. 11. 05 심사 시작: 2011. 02. 09 게재 확정: 2011. 03. 16

